

총본산 성역화 기금 마련 나선다

조계종, 11월 16일 모연의 밤... 중단적 모금 약정 이어질 듯

토지 매입이 최대 관건
2017년 10월 기공 목표

조계종이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탈바꿈시키는 성역화 사업 기금 마련에 나선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봉사 추진위원회는 10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당위성을 알리고 사부대중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 행사에는 원로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총도감 지현 스님을 비롯해 중앙총회의원, 교구본사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 재가단체 대표 등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 모연의 밤 행사에서는 중정 진제 스님의 법어와 주요 내빈 인사말과 축사, 총

도감 스님의 사업 소개 PT 등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청량사 어린이 밴드, 소리야 밴드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졌다. 총도감 지현 스님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오는 2017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영향 평가가 끝난 후부터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 매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오는 2017년 10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노후된 조계사 신도회관을 1차적으로 허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큰 대작불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모연의 밤을 통해 총본산 성역화에 대한 법률교적 관심이 증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계사 일대의 혁신이 이뤄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명

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와 '경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체결해 역사문화지구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에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8년 12월 까지 10·27법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10·27법난기념관' 2개동을 건립한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불자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아케이드,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전통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일반 불자들의 성역화 불사 기금 모금 동참을 위해 ARS 전화와 계좌이체 모연도 함께 진행한다. ARS 전화는 1통에 5000원이며,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기금을 회사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RS 전화: 060-700-1027
후원 계좌: 농협 301-0160-9713-71 (조계종유지재단)
국민 023501-04-221144 (대한불교조계종)



이광복 도편수의 지휘아래 7명의 대목과 스님,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대들보를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욕 원각사

美뉴욕에 한국 전통사찰 기틀 닦다

원각사 10월 25일 대웅전 상량식... 전통공법 활용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는 10월 25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회주 정우 스님을 비롯해 주지 지광 스님, 상민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욕주 샬리스베리미즈에 자리한 원각사는 미동부 최초 사찰로 미국 내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30만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원각사는 양산 통도사 해외포교당으로 1974년 승산 스님이 창건한 이후 1976

년 주지로 부임한 법안 스님이 원력을 세워 불사가 진행됐다. 그 후 2004년 정우 스님이 다시금 총액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원각사는 이번 대웅전 불사에 최고 수령 1천년에 달하는 회귀 목재들이 사용됐다. 또 못을 하나도 쓰지 않는 한국불교 전통의 공법이 활용됐다. 원각사는 지난 2012년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높이 10m의 청동

대불상을 건립 한데 이어 대웅전 원편에 74평 규모의 무량수전, 대웅전 아래에 참선방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량된 대웅전은 중앙기둥이 없는 구조로 84평 규모다.

회주 정우 스님은 이날 "돌아켜보면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이곳에 원각사를 일군 법안 스님과 약속 때문에 이렇게 불사를 이어왔다. 부처님의 정당을 일구게 된 것은 선근있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공덕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노덕현 기자

세계 15개국 차 마스터 '한자리'

11월 5일~8일, 세계차품평대회·차박람회 개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5개국 차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마누자페리스 국제차위원회장을 시작으로 호주티마스터협회장 새린존스틴까지 전 세계 최고의 티마스터들이 한국서 차문화와 산업에 대한 품평과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석자들을 보면 영국의 마누자 페이리스(국제차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해 이태리의 가브리엘라 롬바르디(전 세계 명품수제차 판매회사 티타플리에 대표), 영국의 제임스 폭스(대표적인 명품수제차 기업 대표) 등 15명이다.

현재 한국서 가장 권위있는 차품평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차품평대회다. 이번 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보성 한국차문화공원특별품평실서 개최됐다. 이어 열리는 제3회 보성세계차품평대회는 11월 6일 보성한국차문화공원특별품평실서 전세계 15개국 20여 차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품평분야는 녹차, 홍차, 우롱차, 블렌딩, 흑차 등 총 5개 분야 21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200여개의 세계적인 차를 품평한다.

세계차품평대회의 메인 주제는 바로 세계다식이다. 차 마시는 국가들에는 차와 어울리는 다양한 다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와가시, 프랑스의 마가롱, 대만의 평리수, 우리나라 송화다식 등이 유명하다. 또한 이번 세계 티푸드 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 티푸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장소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다식·향도 등 주제로 진행
티푸드 전시·체험관도 운영

특별전시실이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티푸드에 대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계차품평대회의 두 번째 주제는 한국차계의 이슈인 향도다. 차와 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해왔다. 차에 다례가 있듯이 향에도 향례가 있다. 각국 최고의 향도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각 나라의 독특한 향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도발표회는 11월 7일이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시실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한 세계차박람회답게 각국의 명차를 시음할 수 있는 특별시음관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제 1회로 개최되는 보성티블렌딩 공모전에 입상한 차들도 시음 가능하다. 세계차품평관과 보성티블렌딩공모전 시음관으로 운영될 세계명차시음관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시관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는 미래한국차문화와 산업을 이끌 대안을 제시하는 '추계학술대회'도 개최한다. 11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추계학술대회에는 국내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공동대회장인 여연 스님(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의 차문화와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졌음에도 세계 차문화 산업의 변방이었다"며 "올해는 세계 15개국의 차마케터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차인들을 주목하는 '티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증도가자 위조품" vs "확대해석 무리"

국과수 26일 조사결과 발표에, 문화재청 "과학적 조사 진행중"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논란이 일고 있는 '증도가자(證道歌字)'에 대한 국과수 조사에서 위조 흔적이 밝혀졌다.

국립과학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10월 2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옛 금속활자 7개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속활자 1개를 조사한 결과 고인쇄박물관의 활자 7개에서 위조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10년부터 최고 금속활자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위 금속활자 8개에 대해 3D 금속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통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국과수는 "고인쇄박물관의 7개 금속활자 모두에서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 CT 및 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 전통적 방식의 주물 기법에 의해 제작된 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인쇄박물관의 증도가자는 박물관 측이 구입한 것으로 구입경로가 불분명해 그동안 학계의 진위 논란이 일어왔다. 현재 사립 다보성미술관이 101개, 국립중앙박물관이 1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7개를



'증도가자' 활자 중 일부 모습.

소장하고 있다.

이번 국과수 검증결과에 따라 남은 다보성박물관 소유 증도가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높아진 상태다.

논란 확산에 문화재청은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3개 분야 12명의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이 구성돼 증도가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북대 팀이 한 기초조사연구와 국과수 조사는 참고사항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식 연다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큰법당에서 육문 스님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많은 대중스님들의 지지를 받고 회장으로 선출된 육문스님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취임식을 열원한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여법하나 조용하게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바램과 희망을 담아, 11대 전국비구니회는 원활히 소통하며 지혜롭게 실천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청정 승가의 전통을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초대인사를 통해 "제11대 전국비구니회가 희망찬 출발을 시작한다"면서 "소통하며 함께 하고, 지혜롭게 실천하여, 아름답게 회향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도승(道僧) 덕정스님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총무원장

BTN 불교TV 참수행 특별법회
CMB 방송 초청 설법

사이트 open!

TV
참수행 인터넷 방송
[참수행.kr | 참수행.한국chamsuhaeng.tv]

"나는 무엇인가?"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모든 해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인연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수행 정각사는 수행전문도량으로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법을 공개하였으며 정진 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도(正道)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들만이** 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시고 서산대사님, 사명대사님이 정진하신 차원 높은 고급수행법 고도의 참수행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 www.chamsamo.net | 도서출판 참수행 : www.chamsuhaeng.co.kr

전화문의 서울본원 : 02-2269-0813 [대전, 대구, 부산]
※ 전화상담은 2개월 과정 등록 및 재관련 방문 예약만 가능(기타 자세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화 상담불가)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참수행 정각사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